

韓國戰爭從軍記者

韓國言論資料刊行會

23 한국전쟁종군기자1, 1987년, 국회수난



1
北으로 끌려가는 한국의 저명인사들. 북괴에 의한 납북 인사 가운데는 金奎植, 趙素昂, 安在鴻 등의 정치인을 비롯하여 鄭寅普, 玄相允, 李光洙 등의 많은 저명 예술인, 학자들이 끼여 있었다. 남한의 착화 통일을 꿈꾼 북괴는 앞으로의 재침을 위해 남한의 인적 자원을 고갈시킬 필요가 있었으며 또한 북한의 부흥을 위해 인력이 절대 필요했다. 납북자 수는 3만명에서 10만명까지 추산된다.

2
국군의 서울탈환 직전 북괴에 의해 납치당하고 있는 우익인사.

국회의원의 수난

2대 국회의원 210명 중 북괴군의 서울 침공 직전이나 직후에 한강을 건너 피신한 국회위원은 148명이었다. 나머지 62명은 서울에 남아있다가 북괴 정치보위성에 끌려가 감금된 채 공산당 치하 3개월동안에 온갖 곤욕을 겪었다. 이들 가운데 35명은 천신만고 끝에 1950년 9월28일 국군의 서울탈환으로 다시 대한민국 품에 안겼지만, 나머지 27명은 적치하에서 피살되었거나 9·28 서울수복 직전에 납북되고 말았다. 납북·피살된 2대 국회의원 27명 명단은 다음과 같다.

元世勳 張連松 尹琦燮 趙素昂 安在鴻 李宗聖 柳璟秀 白象圭 金雄鎭 金庚培 趙鍾勝 金憲植 丘德煥 朴晳圭 申錫斌 崔丙柱 崔允鎬(被殺) 鄭仁植 金用茂 金洪鎭(被殺) 趙憲泳 曺圭鳳 朴性宇 梁在廈 金七星 辛容默(行方不明) 李相慶

● 安在鴻씨 납북 장면

국회의원 납북 때의 모습을 安在鴻씨 부인 金富禮여사로부터 들어본다.

『9월22일경(仁川상륙 1주일 후)이라고 짐작되는데 그때 나는 敎岩洞 시동생집에 있었어요. 저녁7시쯤 전부터 안면이 있는 朝鮮日報에 있던 관대희가 와서 면회와 차입을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급히 짐을 꾸려 큰 건물 있는데로 갔지요.(국립도서관 자리. 당시 북괴 정치보위성 남한본부가 자리잡고 저명인사를 이곳에 감금하고 있었다)

주인이 7,8명의 국회의원들과 한방에 있더군요. 그래서 우선 옷만 들여보냈지요. 조금 있으니까 주인이 트럭 위에 막 올라 탔어요. 그냥 서로 멍하니 바주보다가 주인이 겨우 하는 말이 「내 다른 보따리는 어떻게 찾지?」해서, 「검은 보자기에요」 하자 마자 차는 떠났어요. 그것이 마지막인 줄은 몰랐읍니다.』

● 납북인사 명단

북괴군은 패주할 때 남한의 국회의원·정당간부·대학교수·예술인·문인·종교인·기술자 등 모든 분야의 유능한 인재들을 북쪽으로 강제 납치해갔다. 납북자 수는 대개 3만에서 1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 납북인사들은 대부분 아직까지 생사조차 알지 못한다. 다음은 주요 납북인사 명단이다.

康巨福(심계원차장) 康基德(도지사) 康炳順(변호사) 姜旭中(제헌국회의원) 權泰浣(목사) 高權三(대학교수) 高[illegible] 高元勳(고급관리) 高周奭(의사) 丘德煥(국회의원) 具滋玉(YMCA 총무) 具中會(제헌국회의원) 琴泰鎭(고급관리) 奇世福(목사) 金景道(제헌국회의원) 金庚培(제헌국회의원) 金奎植(정치인) 金起濟(의사) 金大奉(고급관리) 金德烈(제헌국회의원) [illegible](변호사) 金東元(제헌국회 부의장) 金東哲(목사) 金東煥(시인) 金秉會(제헌국회의원) 金尙德(제헌국회의원) 金承烈(통신사사장) 金時昌(대학교수) 金若水(제헌국회 부의장) 金億(시인) 金永東(정치인) 金沃周(국회의원) 金用茂(국회의원) 金容采(통신사 사장) 金禹植(국회의원) 金雄鎭(국회의원) 金演鵬(정치인) 金演鵬(UN한국위원) 金貞烈(통령비서) 金日璟(고급관리) 金長烈(국회의원) 金仲基(국회의원) 金中正(변호사) 金七星(국회의원) 金益寧(정치인) 金憲植(국회의원) 金炯元(고급관리) 金孝鎭(고급관리) 南國熙(신문사사장) 南宮薛(기독교인)



1



2

총무) 盧九鉉(고급관리) 馬寅尙(문화인) 明濟世(심계원장) 閔丙玉(사업가) 朴汶根(의사) 朴寶廉(한국여자국민당부위원장) 朴奉石(도서관부관장) 朴性宇(국회의원) 朴勝喆(판사) 朴承浩(대한부인회 위원장) 朴烈(재일본한국거류민단장) 朴榮來(국회의원) 朴允源(국회의원) 朴鍾萬(고급관리) 朴鍾煥(국회의원) 朴哲圭(국회의원) 朴泰俊(판사) 朴鉉明(목사) 方薰(목사) 裵重赫(국회의원) 白寬洙(국회의원) 白象圭(국회의원) 徐承約(대한중석이사) 徐廷禧(국회의원) 薛敏鎬(정치인) 蘇完奎(변호사) 孫晋泰(서울사대학장) 宋昌根(목사) 宋虎聲(국방경비대사령관) 辛錫斌(국회의원) 申成均(국회의원) 辛容黙(국회의원) 申泰桓(고급관리) 沈光漢(변호사) 沈相湖(변호사) 安在鴻(국회의원) 梁鳳鶴(판사) 梁元龍(변호사) 嚴恒燮(독립운동가) 吳世權(변호사) 吳鳳彬(사업가) 吳正方(건국청년단장) 吳澤寬(목사) 吳宅烈(판사) 吳夏英(국회의원) 劉錦成(통신사사장) 柳驥秀(국회의원) 柳子厚(예술가) 柳海文(변호사) 尹琦燮(독립운동가) 尹炳植(심계원관리) 尹炳惠(의사) 尹泰彬(도지사) 李康雨(국회의원) 李龜洙(국회의원) 李潭(고급관리) 李揆源(사업가) 李萬根(국회의원) 李明圭(고급관리) 李文源(국회의원) 李奉柱(농림부차관) 李富烈(대학교수) 李相慶(국회의원) 李聖鳳(의대교수) 李升基(공학박사) 李烈寧(판사) 李寅浩(고급관리) 李貞淳(방송국간부) 李宗聖(국회의원) 李周衡(국회의원) 李重熙(사업가) 李河榮(판사) 李弘洙(고급관리) 林成鎬(사업가) 朴鍾燮(사업가) 元世勳(국회부의장) 張斗植(판사) 張連松(국회의원) 張炳暎(국회의원) 張永彬(검사) 張元順(의사) 張熙昌(재무부차관) 全德允(사업가) 全栄愚(변호사) 鄭廣鉉(합동통신사회부장) 鄭光好(국회의원) 鄭潤煥(판사) 鄭寅普(사학자) 鄭仁植(국회의원) 鄭駿模(대학교수) 鄭太龍(판사), 曺圭卨(국회의원) 趙明鎬(의사) 趙文濟(고급관리) 趙炳溪(국회의원) 趙素昂(한독당부위원장) 趙秀俊(고급관리) 趙玉鉉(국회의원) 趙琬九(한독당상무위원) 趙鍾勝(국회의원) 趙重顯(국회의원) 趙之峰(고급관리) 趙春丈(변호사) 趙憲泳(국회의원) 朴鍾秀(서울신문논설의원) 車周弘(고급관리) 崔奎東(서울대총장) 崔東許(정치인) 崔麟(천도교도령) 崔丙柱(국회의원) 崔乙是(사업가) 崔泰奎(국회의원) 韓相範(판사) 韓祖洙(국회총무국장) 韓哲黙(검사) 韓致明(목사) 許庸洙(국회총무과장) 許永鎬(국회의원) 玄相允(중앙고교교장) 玄德基(판사) 洪淳玉(국회의원) 黃潤鎬(국회의원).